



사진제공 · 남광현

목회

목회론

담임

멍에를 메고 가는 자

2002년 초 부목사로 부임했던 광성교회에 다시금 담임 목사로 부르심을 받기까지, 길고 긴 여정을 걸으며 하나님은 내게 어떠한 담임목회 비전을 주셨는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온 열방과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그리고 이 시대를 깨우는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렇게 '광성'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담임목회에 관한 나의 생각을 나눈다.

남광현 목사

www.ksch.or.kr

광성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본 지로부터 담임목회에 관한 질문을 받고 오랜 숙고와 기도 끝에 ‘담임목사’를 이렇게 정의해 보았다. “담임목사는 명에를 메고 가는 자이다!”

물론 명에를 메고 가는 것은 담임목사만이 아니다. 부목사도 있고, 당회 장로들도 있다. 성도들도 모두 다 명에를 메고 가는 자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마 11:28-29) 하신 것은 담임목사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말씀이다.

그렇다면 담임목사는 무엇이 다른가? 명에를 메고 가되 주님 바로 곁에서, 또는 주님 바로 뒤에서 명에를 메고 가는 자이다.

담임목사의 세 가지 명에

‘담임’(擔任)이라는 말 자체가 ‘메다’(擔)라는 말과 ‘맡는다’(任)라는 말로 이루어져 있다. 무엇을 메고 가는 것인가? 무엇을 맡고 가는 것인가? 여기서 담임목사의 목회 철학이 나온다.

첫째 ‘교회’를 위임받았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는 당신의 양무리를 맡기셨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담임목사가 메고 갈 명에는 교회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양들이다. 거기에는 성숙한 양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어린 양도 있다. 어린 양이라 함은 손이 많이 가는 양, 또는 속 썩이는 양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다 품어야 할 양이요, 즐거이 메고 가야 할 명에다.

그리고 내 양이 아니고, 내 교회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주님의 양이요, 주님의 교회다. 얼마 전 앞차에서 이런 문구를 보아 사진에 담아보았다. “극한 초보! 지금까지 이런 초보는 없었다! 이것은 엑셀인가, 브레이크인가?” 이것은 담임목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극한 초보! 지금까지 이런 초보는 없었다! 이것은 내 교회인가, 주님의 교회인가?” 모르면 초보 담임이다.

둘째 ‘말씀’을 위임받았다.

목사로서, 목자로서 감당할 가장 중요한 책임은 꼴을 먹이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다. 필자에게 설교학을 가르쳐주신 장신대의 고 정장복 교수님은 늘 ‘성언운반일념’(聖言運搬一念)을 강조하셨다. 설교는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 처세술, 행복론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이다. 한마디로 십자가다. 은퇴 이후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대전신학교와 서울장신대 총장을 역임하신 문성모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목회 철학이 있다. “목회의 핵심은 예배에 있고, 예배의 핵심은 말씀에 있고, 말씀의 핵심은 십자가에 있다.”

말씀을 메고 간다 함은 내가 먼저 먹는 것을 말한다. 에스겔도 에스라도 요한도 말씀을 먼저 먹어보고 전했다. 어떻게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가? 책상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무릎으로 받고, 현장에서 맛을 경험한다. 새벽을 1부 5시, 2부 6시 30분으로 나누었다. 그래서 하루 두세 시간을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새벽은 중보하는 시간이자 말씀을 받는 시간이다. 그리고 현장이라 함은 성도들의 삶의 자리이다. 심방을 통해서, 그리고 전도의 현장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다. 필자는 목요일마다 사영리 전도를 나간다. 푸른 하늘 보고 걸으니 몸도 맘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 좋다. 더 좋은 점은 영의 맑아짐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목사 주위에는 믿는 사람만 있다. 그러나 목요일에는 세상 사람들을 만난다. 그들을 만나면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읽는다. 그들의 애환을 듣는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다.

셋째 ‘세상’을 위임받았다.

성경은 복음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고후 5:19)이라 하였다.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다. 고로 담임목사가 메고 갈 또 하나의 명에는 ‘세상’이다.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요 10:16). 담임목사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품는다. 성경 어디를 열어도 ‘가라, 전하라, 살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행 18:10) 하셨다. 웨슬리가 말한 대로 세계가 나의 교구다. 하나

담임목사는 주님 바로 곁에서, 또는 주님 바로 뒤에서 멍에를 메고 가는 자입니다.

담임목사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품는다. 성경 어디를 열어도 ‘가라, 전하라, 살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 떠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구약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었다. 그 이름의 뜻이 ‘짐 지고 가는 자’이다. 목사가 된다 함은 아모스가 되는 것이다. 교회를 짊어지고, 말씀을 짊어지고, 세상을 짊어지고 가는 자이다.

남광현 목사 | 월간목회 2024년 10월호

님 떠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구약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었다. 그 이름의 뜻이 ‘짐 지고 가는 자’이다. 목사가 된다 함은 아모스가 되는 것이다. 교회를 짊어지고, 말씀을 짊어지고, 세상을 짊어지고 가는 자이다.

광성교회 담임목회로의 여정

필자는 2002년 2월 24일 광성교회에 부목사로 부임했다. 2년을 즐겁게 섬겼다. 그런데 지난 2003년 12월 20일, 고 김창인 목사가 은퇴하시고 후임자가 부임하면서 교회는 큰 분쟁에 휩싸이게 되었다. 몇 개월 사이에 열여덟 명의 교구장이 반반으로 갈라졌다. 필자는 어느 편에도 서지 않은 채 갈등을 막아보려 최선을 다했으나 부목사로서는 역부족이었다. 후임 목사님은 몇 차례 필자를 불러 회유하려 하셨다. 원로목사님 감옥 가시게 되었으니 당신을 도우라시며, 회계장부를 보여줄까 하셨는데, 필자는 설사 원로목사님께 어떤 허물이 있을지라도 목사님께서 품고 가 주실 것을 부탁드렸다. 목회자의 생명은 성도들로부터의 존경에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성공한들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들이 목사님을 끝까지 따르겠는지 생각해 보실 것을 말

씀드렸다. 그러나 목사님은 당신의 길을 가셨다. 그렇게 해서 따르는 성도들을 통해 원로목사님을 재정 문제로 십수 차례 진정, 고소하였고, 힘으로 당신을 따르지 않는 부목사들과 성도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원로목사님에 대한 소는 모두 무혐의, 무죄로 확인되었고, 그 같은 3년 뒤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목사들과 성도들을 처내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이는 그가 교단의 헌법과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생활 3년을 마치고 2008년 8월 8일 성전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때 필자는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하고, 다음 달 바로 사임하고 하와이 코나에 있는 YWAM 열방대학(University of the Nations)으로 유학을 떠났다. 무작정 떠났는데, 하나님은 필자로 거기서 제자학교(DTS)와 상담학교(IBC), 그리고 바이블 스쿨(SBS)을 하게 해주셨다.

그런데 2년쯤 뒤 필자는 당회로부터 담임목사 청빙을 받았다. 광야 생활 중에 모셨던 담임목사님이 연임에 실패하게 되면서 후임자 선정 문제로 갈등하던 당회가 한마음으로 필자를 청빙하기로 한 것이었다. 또한 분쟁이 다 해결된 것으로 알았는데, 대법원 3심에서 애매한 결정을 내림으로 분쟁이 장기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2010년 12월 30일 광성교회로 돌아온 필자



사진제공 · 남광원

는 임시당회장(상대측의 웨방으로 공동의회를 열 수 없었기에)으로 분쟁을 매듭하는 데 6년의 세월을 보내고, 2017년 5월 18일이 되어서야 위임을 받게 되었다. 이후 상대측을 하나의 교회로 독립시켜 분립하는 데 2년의 시간을, 그리고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데 2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남은 성도들과, 그리고 깨닫고 돌아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높임 받으시는 건강한 교회의 회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온전한 시선을 가진 행복한 교회’로

그렇다면 명예를 메고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이는 목회 비전에 관한 것인데, 광성교회 홈페이지에 실은 내용을 소개하고 싶다.

우리 교회는 廣星(광성)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광주(廣州)의 별(星)이 되자’라는 뜻에서였습니다. 1959년 12월 20일 창립 당시 교회가 위치했던 이곳이 경기도 광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성은 광주를 지칭할 때의 넓을 광(廣) 자에, 별 성(星) 자를 썼습니다. 그런데 4년 뒤 서울시로 편입되었고, 또 3년 뒤인 1966년

김창인 목사님이 부임하시면서 광성교회는 놀랍도록 부흥 성장하였는데, 목사님의 그 선명하고도 가슴을 울리는 설교 말씀은 온 열방과 세상을 비추는 빛이요, 이 시대를 깨우는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광성교회는 더 이상 광주의 별이 아닌, 서울의 별도 아닌, 한반도와 온 열방을 비추는 별이 되었습니다. 곧 광성은 광주의 별 광성(廣星)에서, 빛 광(光) 자에, 소리 성(聲) 자, 광성(光聲)이 된 것입니다.

이제 목사님의 뒤를 이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온 열방과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그리고 이 시대를 깨우는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로, 광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위해 ‘온전한 시선을 가진 행복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위를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기에 하나님을 기뻐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안을 살펴보는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늘 내 안을 살펴 가시떨기를 뽑아내고, 돌을 골라내고, 굳어지는 마음을 기경하고, 눈에 들보를 빼내는 경건한 삶을 삽니다. 이어서 곁을 돌아보는 교회입니다. 곧 주의 사랑으로 가까이 있는 가족과 교우들을 돌아보고 섬김으로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끝으로 밖을 내다보는 교회입니다. 곧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와 한반도와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답고도 복된 삶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일구어 가십시오. 여러분은 광성교회입니다.

위의 비전, ‘온전한 시선을 가진 행복한 교회’는 필립 안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란 책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다. 한 번 흔들렸던 교회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온전한 시선을 가진 건강한 교회’로 재건되는 것이 필요하겠단다 싶어서다.

광성교회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보낸 세월이 어느덧 22년이다. 요즘 필자의 기도도와 우리의 사역들을 보면, 주된 관심이 예배와 소그룹, 다음세대, 지역사회, 통일의 준비에 있음을 본다. 주님과 함께 그리고 교우들과 함께 즐거이 이 명예를 짊어지고 가고 싶다. ❷